

## 2000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천년의 시작인 庚辰年 새해를 맞이하여 국토방위에 여  
념이 없는 국군장병과 방산업체 임직원 그리고 애독자 여러  
분의 가정에 祝福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本 會에서 발행하는 국방 전문지 <國防과 技術>이 이번호로  
창간 21주년을 맞이한 것을 애독자 여러분과 自祝하면서 그 동안 맡  
은 바 所任을 다해 온 편집관계자와 취재 협조 및 寄稿를 통해 성원  
해 주신 많은 분들께 이 기회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  
다.

올해는 지난 천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밀레니엄을 시작하는 출발점  
으로 희망과 다짐이 함께 하는 해입니다. 그러나 천년의 희망도 국가  
안보의 뒷받침 없이는 砂上樓閣에 불과해 일순간 무너질 가능성도 상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등 대남 적화야욕을 버리지 않은 채 군비 증  
강에 더욱 몰두하고 있고, 탈북자들을 통해 전해지는 북한 동포들의 비참한 생활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의 주변정세를 살펴보면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中國, 日本 등 역내 국가의 군비경쟁이 더 한  
층 가열되고 있으며, 東西 화해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선진각국의 군사력 강화 움  
직임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안보환경 속에서 「강한 자만이 살아 남는다」는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고 오  
늘의 主敵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자주국방과 이를 위한 방위산업 육성 발전의 중요성은 아무  
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本 會에서도 새해를 “방위산업 가동률 향상과 해외수출 활로 모색의 해”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새로운  
방위산업 육성정책 개발과 업계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수출 마케팅 강화와 선진 각국과의 기술 협력 내실  
화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발전과 月刊 <國防과 技術>誌의 발행에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당국 및 국군  
장병과 방산업계 그리고 애독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기대하는 바  
입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기쁨이 충만하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0년 1월 1일

韓國防衛産業振興會 會長代行 沈利澤